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前號에서 계속〉

## 데보노의 수평 사고

1969년 9월 24일, 세계의 광고 관계자가 일본에 모여 세계 광고 회의를 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된 것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데보노 박사의 수평사고(뉴우 덩크) 강연이었다.

이것은 지금 매크루우선(그는 아이디어나 창조에 대해 풀이하지 않았지만 이 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보다도 큰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데보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그림을 보이고,

“10초 동안 이 그림을 본 다음 그림을 덮고 그려 보세요.” 하고 말했다.

이 시험에서는 (가) 그림은 90퍼센트의 사람이 제대로 그렸고, (나) 그림은 60퍼센트의 사람이 그렸으나 (나) 그림은 10퍼센트의 사람밖에 그리지 못했다.

즉 (나) 그림은 기억하기 어려운 도형이다. 그것은 어제서일까? 그 까닭은, 사람이 패턴언어로 사물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고 방식으로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물은 낮은 쪽으로 흐른다고 하는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고 방식으로부터는 물을 위로 올리는 사이펀의 이치는 생각해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발상에는 옳다고 믿고 있는 고정관념을 떨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강연은 한 시간 만에 끝났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때까지 아이디어 발상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하는 이론이었다.” 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아이디어 발상법을 공부 했던 사람은,

“저런 것이라면 나도 지금까지 해 왔는걸 이제까지 말해 온 창조력이라는 것을 다른 면으로부터 학문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잖아.”라고 말했다.

수평 사고를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비유가 곧잘 사용된다.

① 갑은 을로부터 빛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므로 교도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을은 고리대금업자인데, 갑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다.

③ 처녀는 을이 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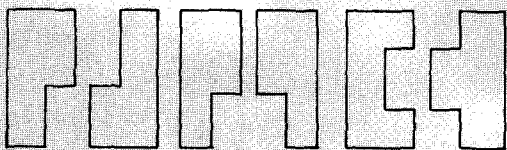
④ 그래서 을이 제안했다.

“내가 길에 있는 흰 돌과 검은 돌은 하나씩 주워서 자루에 넣겠다. 그리고 처녀에게 그 자루 속에서 하나만을 꺼내게 하겠다. 그리하여, 만일 흰 돌을 꺼내면 빛은 탕감하겠다. 그러나 검은 돌을 꺼내면 나하고 결혼해 줘야겠다.” 하고는 을은 몰래 검은 돌을 두 개 주워서 자루에 넣었다. 처녀는 그것을 알았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는 흔히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연극이나 소설에서는, ① 돌을 꺼내기를 거부한다.

② 속에 검은 돌이 두개 들어 있다는 사실을



(가)

(나)

(다)

“수평 사고의 하나의 테크닉은 사물을 역전시켜 보는 것이다. 뻔히 아는 아이디어라도 뒤집어 보고 반대로 돌려 볼 일이다.  
이 역전시켜 보는 사고법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테크닉이다.”

폭로 한다.

③잠자코 검은 돌을 꺼내고 울며 불며 결혼한다. 하는 안을 취한다. 어느 안이나 한 바탕 사단이 벌어질 아이디어이다. 다른 방법은 현대의 사고법으로는 생각 할 수 없다.

그런데 수평 사고법으로 생각하면 이제까지의 관념이 타파된다. 그리하여 사고 방식의 중심을 수평으로 돌리어 자루 속의 돌로부터 길에 널려 있는 돌로 눈을 돌리어, ‘이 가운데서 돌을 주운 것이다.’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처녀는 자루 속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집었다. 그리고는 “어머.” 하면서 일부러 그것을 길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리고,

“어머,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자루 속에 아직 남아 있는 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떨어뜨린 돌은 그것과 반대이니까요……” 하고 대답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나중에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아이디어이다.

똥똥보 부인을 여위게 하는 데는 절식 요법(節食療法)이 좋다고 권하는 것은, 논리적, 수직적 사고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 ‘식사하기 한 시간 전에 맥아유(麥芽乳)를 큰 유리잔으로 한 잔 마시도록 권하는 것’은 중심점을 돌리어서 낸 수평 사고이다. 즉 나중에 식사를 할 수 없도록 꾸민 것이다.

‘자동차 뒤에 달려 있는 점멸 방향 지시기(點滅方向指示器)는 방향을 지시하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밝게 하여 후방 조명으로 삼으면 운전하기 쉽다.’ 하는 생각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예로부터의 수직 사고법이기에 때문이

다.

엘리베이터 부족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모집했던 바 에스컬레이터를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나, 입구에 큰 거울을 걸어 놓았더니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도 수평 사고이다.

수직 사고는 논리학이나 수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사고 방법이다. 따라서 한단 한단 파내려가는 매듭 없는 사고법으로서 그 한단 한단이 올바르게 없으면 안된다.

예로부터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이 방법이었다. 그런데 수평 사고란 구멍을 하나 파더라도, 돌이 나오면 거기서 그만두고 옆의 구멍을 파는 사고 방식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것도 인과적(因果的)일 것도 없다.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해답의 지점으로부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수평 사고의 하나의 테크닉은 사물을 역전시켜 보는 것이다. 뻔히 아는 아이디어라도 뒤집어 보고 반대로 돌려 볼 일이다.

이 역전시켜 보는 사고법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테크닉이다.

우리의 문명은 개념을 성취시키는 데는 열성스럽지만, 그 개념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기술가가 이미 알려진 기술에만 사로잡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것은 수직 사고가 가져온 가장 나쁜 면이다. 기술가야말로 수평 사고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지금 세계의 산업계, 광고계, 예술계, 교육계 등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수평 사고이다.♣